1861년 熱河問安使行과 朴珪壽

김 명 호

1. 머 리 말
2. 1860년 北京事變과 熱河問安使 파견
3. 燕行의 구체적 경위
4. 燕行의 성과와 한계
5. 맺 음 말

1. 머 리 말

瓛齋 朴珪壽(1807~1877)는 19세기 조선의 정치사·사상사뿐 아니라 문학사에서도 크게 주목해야 할 인물이다. 그는 燕巖 朴趾源의 손자로서 英·正祖시대 實學의 성과를 충실히 전수받은 당대의 유수한 문인 학자였다. 또한 그는 고위 관료로서 진주 농민항쟁·제네럴 셔먼호 침략 등과 같은 중대 사건들을 처리하여 정치적 역량을 발휘했다. 나아가 그는 開化思想의 선구자로 평가되기도 한다. 해외 사정에 대한 연구와 두차례의 중국여행을 통해 급변하는 국제 정세를 남보다 앞서 인식하고 강화도조약 체결을 지지했으며, 후일 개화운동을 주도한 인물들이 그의 문하에서 배출된 때문이다. 따라서 박규수의 생애와 활동에 관한 연구는 近代黎明期로서의 19세기의 정치·사상·문학을 규명하는 데 가장 긴요한 과제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그와 같은 문제 의식 아래 진행 중인 '환재 박규수 연구'의 일환으로서 1861년(哲宗 12년) 박규수의 熱河問安使行을 고찰하고자 한다. 종래 학계의 일각에서는 이 첫번째 중국여행이야말로 그의 사상적 전환을 가져온 결정적 계기가 되었으리라고 보았다. 즉, 이 여행을 통해 박규수는 『海國圖志』·『瀛環志略』 등을 구독하고 그와 같은 新書의 영향으로 개화사상을 형

성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가 하면,[1] 이 여행을 계기로 박규수의 淸國觀과 西洋觀이 크게 달라지면서 그의 對外開放意識도 '海防論的인 것'에서 '外交開國論'으로 발전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2] 이는 박규수가 실학에서 개화사상으로 전환한 시기를 1872년 그의 제2차 중국여행 이후로 보는 견해[3]와 맞서, 1860년대를 중시하는 견해이다.

그러나 1840년대 후반에 쓴 「闢衛新編評語」에서 알 수 있듯이 그 무렵에 이미 박규수는 『해국도지』에 접하고 '東道西器論'의 萌芽라 할 수 있는 중요한 사상적 변화를 보여주었다. 뿐만 아니라 1850년 경에는 『해국도지』에 의거하여 세계 지리를 나타낸 地勢儀를 제작했다.[4] 따라서 1861년의 燕行을 박규수의 사상적 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분기점으로 보는 주장에 동의하기는 어렵지만, 그것이 1840년대 후반 이후 일어난 그의 사상적 변화의 연장선상에서 또 하나의 계기로 작용했을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된다. 이 문제를 제대로 규명하기 위해서는 1861년 연행의 구체적인 경위와 그 성과에 대한 치밀한 실증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박규수의 熱河問安使行에 관한 고찰은 湛軒 洪大容을 위시한 北學派의 燕行 전통과 관련해서도 의미있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연암 박지원은 1780년(正祖 4년) 朝鮮使行으로서는 최초로 열하까지 다녀와 『熱河日記』라는 燕行文學의 걸작을 남겼는데, 박규수의 연행은 그러한 조부의 뒤를 잇는 셈이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연행에 앞서, 일찍이 1827년에 담헌의 손자인 벗 洪良厚가 중국을 다녀 왔으며, 제1차 아편전쟁기인 1840년에는 表叔인 李正履가 書狀官으로 중국을 다녀 와 그에게 큰 자극을 주었다.[5] 또한 그와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연행을 꿈꾸었던 벗 金永爵과 申錫愚가 각각

(1) 신용하, 1985 「김옥균의 개화사상」, 『동방학지』 46 · 47 · 48합집, 162-7면.
(2) 손형부, 1997 『박규수의 개화사상 연구』, 일조각, 124-6면.
(3) 이광린, 1979 『한국개화사상연구』, 일조각, 42-43면 : 강재언(정창렬 역), 1981 『한국의 개화사상』, 비봉출판사, 130면.
(4) 김명호, 1995 「환재 박규수 연구(3): 은둔기의 박규수下」, 『민족문학사연구』 8호, 136-159면 ; 1996 「박규수의 '地勢儀銘并序'에 대하여」, 『진단학보』 82호 참조.
(5) 김명호, 1993 「환재 박규수 연구(1): 수학기의 박규수」, 『민족문학사연구』 4호, 80-88면 ; 1995 「환재 박규수 연구(3): 은둔기의 박규수 下」, 『민족문학사연구』 8호, 125-136면 참조.

1858년과 1860년에 冬至副使와 冬至正使로서 북경을 다녀왔다.

박규수의 연행은 이와 같이 北學意識을 공유한 주위 인사들의 연행으로부터 영향받고 고무된 결과이기도 했다. 특히 김영작과 신석우가 북경에서 중국 인사들과 교분을 다져 놓은 것은 그 직후 북경에 간 박규수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또한 신석우가 남긴 『入燕記』는 『열하일기』의 전통을 잇는 19세기의 대표적 燕行錄으로서 주목할만한 저술이며, 그와 같은 기록을 남기지 않은 박규수의 연행을 살피는 데 요긴한 참고가 된다. 그러므로 1861년 열하문안사행의 경위와 성과를 심도있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담헌과 연암으로부터 홍양후·이정리 등을 거쳐 김영작과 신석우에 이르는 일련의 연행 전통을 고찰하는 사전 작업이 필요하지만, 여기서는 지면 관계상 연암과 박규수의 관련을 위주로 간략히 언급하는 데 그쳤다.

2. 1860년 北京事變과 熱河問安使 파견

제1차 아편전쟁에서 패배한 결과 淸은 1842년(道光 22년) 홍콩 割讓, 항구 개방, 치외 법권의 인정 등을 골자로 한 南京條約을 영국과 체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어서 1844년에는 미국·프랑스와도 각각 望夏條約과 黃埔條約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조약 체결 이후에도 중국 시장의 개척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데 불만을 품은 영국은 1854년(咸豊 4년)부터 미국·프랑스와 함께 중국 진출에 더욱 유리하도록 조약 개정을 끈질기게 요구했지만, 청으로부터 번번이 거부당했다. 그러자 영국은 1856년 소위 애로우호 사건을 빌미로, 프랑스와 연합군을 결성하여 제2차 아편전쟁을 도발했다. 英佛 연합군은 1857년말에서 1858년초에 걸쳐 廣州를 공격·점령하고, 이어서 天津까지 진격하여 1858년 6월 외국 공사의 북경 주재, 항구의 추가 개방, 내지에서의 여행·통상 및 포교의 자유, 영사 재판권의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한 天津條約을 체결함으로써 마침내 조약 개정을 관철하고 철수했다.

그러나 그 후 북경에서 비준서를 교환하는 문제를 놓고 청과 영국이 다시 대립하던 중, 1859년 6월 조약 비준을 강행하고자 북상하던 영국 군함이 大沽에서 청국 군대의 포격을 받고 대파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영불 연

합군이 재차 결성되어 1860년 8월 대고를 함락하고, 천진·通州를 돌파하여 9월 북경으로 진격했다. 그에 앞서, 북경 교외의 圓明園에 거처하던 咸豊帝는 통주에서의 담판이 결렬되고 영불 연합군의 공격으로 군대가 대패하자, 恭親王 奕訢에게 대외 교섭을 떠맡기고 자신은 熱河로 蒙塵했다. 10월 24일(이상 양력) 마침내 영불 연합군은 천진조약을 계승·확대한 北京條約을 공친왕과 체결한 후, 북경에서 철수했다. 이것이 소위 '北京事變'이다.(6)

당시 조선 정부는 제2차 아편전쟁기의 중국 정세를 비교적 신속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전쟁의 도화선이 되었던 애로우호 사건에 관해서는 미처 몰랐지만, 1858년 冬至使行을 통해 영불 연합군의 광주 점령 사실은 알고 있었다. 이어서 1859년 동지사행은 영불 연합군이 천진까지 진격하여 조약 개정을 강요하고, 청국 군대가 영국 군함을 격파한 사건을 보고했다. 그러나 조선 정부는 이러한 정보에 접하고도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거나, 영국을 비롯한 서양 열강의 움직임에 특별한 관심을 표하지는 않았다.(7)

그런데 이와 같이 안이한 조선 정부의 태도는 철종 11년 12월 9일(양력 1861년 1월 19일), 북경에 파견된 時憲書 賚咨官의 手本을 접하고 급변했다. 이를 통해 비로소, 북경이 이미 함락되고 원명원 등이 방화 약탈되었으며 황제가 열하로 몽진했을 뿐 아니라, 영불 등 '洋夷'와 새로운 조약을 맺어 기독교 포교를 금하지 않고 자유로운 통상을 허용하며, 은 800만냥을 배상금으로 물게 되었다는 등의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비변사는 즉시 '熱河問安使'라는 명칭으로 위문 사절단을 파견할 것을 건의하여 왕의 재가를 얻었다. 다음날 열하 문안사행의 正使에 李源命(뒤에 趙徽林으로 교체됨), 副使에 박규수, 書狀官에 申轍求가 임명되었다. 首譯은 李閏益이었다.(8)

---

(6) 蕭一山, 1976『淸代通史』, 臺北: 商務引書館, 제3권, 457-512면 : 陳振江 外 共著, 1981『中國近代史新編』, 北京: 人民出版社, 上册, 352-410면 참조.

(7)『同文彙考』, 철종 9년 3월 28일, 철종 10년 3월 30일 : 하정식, 1985「太平天國에 대한 조선정부의 인식」,『역사학보』107호, 205면 : 민두기, 1986「19세기 후반 조선왕조의 대외 위기의식」,『동방학지』52호, 266-7면 : 三好千春, 1990「兩次アヘン戰爭ト事大關係ノ動搖」,『朝鮮史硏究會論文集』27호, 49-50면 참조.

(8)『日省錄』, 철종 11년 12월 9일 : 申錫愚,『海藏集』권16,『入燕記』,「路遇歷咨記」, 장3앞-4뒤 참조.

한편 北京事變 소식이 국내에 알려지자 커다란 파문이 일었다. 朝野에 서양의 조선 침략설이 나돌면서 시골로 피난하는 소동이 일어났으며, 이러한 위기의식은 지방까지 확산되어 崔濟愚가 東學을 창도한 중대 계기가 되었을 정도였다.(9) 박규수의 벗 徐有英은 송별시에서 "南匪(太平天國軍-인용자)가 틈을 엿보고 다시 날뛰니 / 사람들은 이번 사행이 진짜 위험하다고 말하네"라고 하여, 그가 내우 외환에 처한 중국에 사신으로 가게 된 것을 주위 인사들이 몹시 불안해 하였던 사정을 전하고 있다. 문하생 金允植도 贈序에서, 박규수가 열하문안 부사로 선발되었을 때 친지들이 모두 걱정하면서, 청이 "자초하여 난을 당했으니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 고관들은 편히 지내면서 도리어 公(박규수)으로 하여금 노고를 겪게 한다"며 원망했다고 한다.(10)

이러한 실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박규수는 열하 문안사행을 자원했다. 후일 북경에서 사귄 董文煥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는 "咸豊 辛酉年 일을 기억하건대, 제가 열하에 갈 때 사람들은 모두 險地에 뛰어들어 위험을 무릅쓴다고 생각하여 몹시 두려워했지요. 제가 선발된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한바탕 웃으면서 용감하게 떠나가매, 무엇을 걱정하며 무엇을 근심하였겠습니까?"라고 당시의 심경을 회고했다.(11)

박규수는 그의 벗 洪良厚와 마찬가지로 북학파의 후예로서 일찍부터 중국 여행에의 꿈을 품고 있었을 뿐더러, 근자에는 벗 김영작과 신석우가 잇달아 연행의 숙원을 이룬 데에 적지 않은 자극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박규수가 적극적으로 연행을 자원한 것은, 무엇보다도 1840년대 후반 이후의 그의 학문적 사상적 방향 전환과 깊은 관련이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미 고찰한 바와 같이, 그는 제1차 아편전쟁의 충격적인 소식에 접하는 한편 『해국도지』와 같은 新書의 영향을 받으면서부터 서세동점의 세계사적 격변에 대처하기 위한 時務策을 강구하기 시작했다. 1840년대 말 1850년대 초에 씌여진 「闢衛新編評語」와 「地勢儀銘 幷序」는 이러한 방향 전환을 단적

(9) 『稗林』, 「哲宗紀事」, 철종 12년 정월 : 三好千春, 위의 논문, 61-2면 참조.
(10) 서유영, 『雲皐詩選』, 「送瓛齋副行人赴熱河咸豊皇帝奔問之行」 ; 김윤식, 『雲養續集』 권2, 「奉送瓛齋朴先生赴熱河序」.
(11) 『瓛齋集』 권10, 「與董研秋」(6).

으로 보여준 글들이다. 바로 이와 같은 인식 변화에 따라 몸소 중국에 가서 격동하는 세계 정세를 조감하고 싶은 그의 열망은 한층 강렬해졌으리라 짐작되지만, 仕宦 이전의 그에게는 좀처럼 연행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북경사변이 발발하여 다시금 내외의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이 닥치자, 박규수는 다른 관원들이 기피하여 마지 않은 위험한 연행을 자원하고 나선 것이다. 게다가, 공교롭게도 열하는 그의 조부 연암이 조선 사행으로서는 최초로 다녀 온 곳이 아니던가! 유명한 『열하일기』를 통해 익히 알고 있던 바로 그곳으로 파견되는 호기를 놓칠 수는 없었으리라.

3. 燕行의 구체적 경위

1) 出國

1861년(철종 12년) 1월 18일(음력) 박규수는 드디어 숙원이던 연행에 나서게 되었다. 장도에 오르는 그를 위해 가까운 벗과 문생들은 送別 詩文을 지어 주었다. 서유영은 7언 48행으로 된 장편 한시에서, 우선 "내 일찍이 『열하일기』 읽기를 좋아했나니 / 우리나라의 奇文으로 이보다 나은 것 없네 / 民情이며 성곽과 산천을 / 종횡무진으로 그림처럼 그려내었지 / 당시의 大家로 유독 推尊되었는데 / 그대는 燕巖翁의 뒤를 이은 손자라 / 재주는 六藝에 통하여 經國濟民의 뜻을 품었고 / 학식은 三敎까지 넓히어 경전을 깊이 연구하였지 / 그 뒤로 여유있게 고위 관직에 올랐으니 / 기린이 숲에 있고 봉황이 오동나무에 깃들듯이"라고 노래했다. 박규수가 예전에 중국을 다녀와 『열하일기』를 남긴 文豪 연암의 손자임을 무엇보다 먼저 강조한 것이다.

그리고 조선 사신이 열하에 가기는 淸 乾隆 때 연암이 포함된 사행이 처음이었음을 언급한 뒤에, 당시 중국 정세에 대하여 "어찌 알았으랴. 서양 오랑캐의 선박이 바다를 건너와 / 대낮에 북경을 불태워 재로 만들 줄! / 八旗兵이 패하여 황제가 播遷하니 / 親王이 남아서 지키며 성문을 열지 않네 / 교외에 연기 자욱하고 포탄이 다투어 떨어지니 / 나그네들 길 막히고 匪

賊들 날로 설치네"라고 하였다. 서유영은 시헌서 뇌자관의 手本을 통해 조정에 전해진 북경사변의 소식을 비교적 소상히 알고 있었던 듯하다.

이어서 그는 "이런 와중에 달려가 위문함은 사람들이 어렵게 여기는 바인데 / 그대만은 慨然히 길을 나설 뜻이 있었네 / 關塞가 험하다 한들 王靈이 보호할 터이고 / 더군다나 연암옹이 예전에 다녀간 길 아니던가! / 路程은 산해관을 나서기까지 두루 기술하였고 / 필담은 鵠亭(즉 鵠汀. 王民皙의 호-인용)을 만난 대목이 가장 상세하였지"라고 하였다. 즉, 박규수가 남들이 위험하다고 꺼려하는 열하 문안사행을 용감하게 자원한 것을 예찬하는 한편, 연암을 뒤이어 손자인 그가 열하로 떠나게 된 기이한 인연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열하일기』에 수록된 「關內程史」·「鵠汀筆談」 등을 참조하여 무사히 다녀올 것을 기원한 것이다. 또한 서유영은 "알겠노라, 귀로에 紀行篇을 지어 / 兩代의 문장이 아름다운 짝을 이룰 터임을"이라 하여, 박규수가 조부의 『열하일기』에 필적할만한 뛰어난 기행문을 남길 것을 기대했다.(12)

한편 門人 金允植은 박규수에게 贈序를 지어 바쳤는데, 이는 비단 師弟之間인 측근 인사의 글일뿐 아니라 진지하게 時務策을 논한 3400여자의 長文이라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13) 이 글에서 김윤식은 열하 문안사 파견의 의의로 다섯가지를 들었다. 첫째, 조선은 淸과 지난 200여년 동안 事大關係를 맺고 우호적으로 지내왔으므로, 지금 국난을 맞은 청에 대해 사대의 의리를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조선은 청과 脣齒의 관계에 있어 청이 불행해지면 조선도 무사할 수 없으므로, 극히 유동적인 중국의 현 정세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서양 오랑캐'는 다음 차례로 조선을 침략할 터이므로, 그 대비책으로 그들의 '習俗'과 '志氣'와 軍律 및 통치술 등을 탐지해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청이 일시 위기에 빠진 이때

(12) 『雲皐詩選』, 「送桓齋副行人赴熱河咸豊帝奔問之行」.
그밖에 벗 趙冕鎬가 지은 송별시로 7언 絶句 3수(『玉垂集』 권7, 「奉贈朴禮東大夫熱河使役」)가 전한다.

(13) 『雲養續集』 권2, 「奉送瓛齋先生赴熱河序」.
이 글은 原田環, 1997 『朝鮮の開國と近代化』, 廣島: 溪水社, 98-99면 ; 손형부, 앞의 책, 100-7면 등에서 언급된 바 있다. 단 여기에 피력된 김윤식의 견해가 당연히 박규수의 견해와 일치할 것으로 전제한 위에서, 이를 당시 박규수의 對外認識을 말해주는 자료인양 구사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조선이 사대 의리를 변치 않는다면, 청이 이를 극복하고 난 뒤 그들로부터 더욱 외교적 우대를 받게 될 것이며 유사시 군사력을 빌릴 수도 있으리라는 것이다. 다섯째, "華로써 夷를 변화시켜 天命을 지닐 수 있었던" 청이 후대에 이르러 존망의 위기에 처하게 된 원인을 탐지하여,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요컨대 김윤식은 중국의 현 정세와 서양의 실정을 탐지하는 한편 청과의 기존 사대 관계를 유지·강화함으로써, 서양의 조선 침략에 대비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런데 이와 같이 청을 중국의 정통 왕조로 인정하고 청과의 사대 관계에 기대어 대외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적어도 19세기 이후 조선 정부가 취해 온 외교 노선이기도 했다.(14) 따라서 증서에 나타난 對淸認識을 김윤식의 독자적인 견해로 보기는 어렵지만, 이는 훗날 그가 개화운동에서 親淸 노선을 지향하게 될 것을 예견케 한다고 하겠다.

또한 증서에서 김윤식은, 박규수가 사신으로 발탁된 이유를 열거하면서 그 중의 하나로, 그가 다른 나라의 실정을 잘 탐지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점을 들었다. "예전에 公의 조부 연암 선생은 선비 신분으로 上國을 유람한 적이 있었는데, 청 世宗이 라마교 승려를 높이 받드는 것을 보고, 그가 티베트의 강함을 두려워 하여 겉으로는 흠모하는 체 하지만 속으로는 인질로 잡아두었음을 알았다. 신하들이 허겁지겁 뜻을 따르는 것을 보고 君道가 날로 횡포해짐을 알았으며, 異國의 怪文書를 보고는 그것이 西班의 손에서 나온 것을 알았고, 거름흙과 기왓조각을 보고는 중국 문물의 규모가 거대함을 알았으니, 이것야말로 이웃나라를 잘 엿본 이가 아니겠는가?" 그런데 오직 박규수만이 家學을 통해 이러한 연암의 교훈을 계승할 수 있었으므로, 사행의 적임자라는 것이다.

한편 출국을 앞둔 1월 6일 박규수는 가까운 벗들과 전별연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지은 7언 56행의 장편 古詩(15)를 보면, 열하 문안사행에 임하는 그의 자세와 심경이 잘 드러나 있다. 이 시에서 박규수는 제2차 아편전쟁기의

(14) 특히 1832년 영국 상선이 交易을 요구한 이래 조선 정부는 서양의 침투를 막기 위한 방편으로, 청과의 사대 관계를 더욱 내세우면서 이를 보호막으로 활용하고자 했다. 민두기, 앞의 논문, 271면 참조.

(15) 『환재집』 권3, 「辛酉孟春將出疆留別諸公」.

중국 정세를 대단한 위기 상황으로 보았다.

승냥이와 범이 날뛰고 고래들이 출몰하며	豺虎縱橫鯨鯢出
風塵은 쉴새없이 바다와 대륙을 휩쓴다	風塵鴻洞陸海遍
兵馬가 굳센들 어찌 믿을 수 있으랴?	兵馬强壯豈足恃
기강이 온통 상실됨을 여기에서 보겠노라	綱紀一失此可見
더구나 서역 오랑캐 상인들의 巧說은	況復西域賈胡說
사람과 하늘을 속이도록 선동하는구나	矯誣人天來相煽
모두들 우리 유교가 액운에 들었다고 말하는데	皆言斯文厄陽九
도탄에 빠진 천하를 누가 구원할 수 있으랴?	天下胥溺誰能援

이와 같이 그는 당시 중국이 내우 외환에 시달리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정치적 기강이 상실된 데다가, 서양인들이 교역을 구실로 기독교 전파에 힘쓴 때문이라 보았다. 또한 그 결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유교 문명권이 일대 위기에 봉착한 것으로 진단했다. 그러나, 이어서 박규수는 서양의 침략에 직면한 중화 문명의 장래를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오호라 성인이 어찌 우리를 속이시리?	嗚呼聖人豈欺我
벗이여 애태우며 걱정하지 말게나	請君且莫憂思煎
六經은 중천에 뜬 해와 달 같으니	六經中天如日月
陰이 다하고 陽이 회복되느라 一線을 다투고 있네	窮陰復陽爭一線
왕년에 불교가 중국을 해치어	當年佛敎賊中國
눈깜짝할 새 모조리 禽獸로 변했건만	盡化禽獸卽轉眄
南朝의 사백 개나 되던 절들 어디에 있나?	南朝四百寺安在
요즘 사람은 祭物 대신 국수 바치는 불교 풍습 비웃네	而今人笑犧代麵
더러운 찌꺼기가 크게 맑아지는 것도 잠시 일이라	滓穢太淸亦暫爾
저 떨어지는 싸라기눈 같이 해가 비치면 사라질 것을	如彼集霰消見睍

여기에서 그는 현재의 위기를 동짓날에 비유했다. 陰氣가 극에 달하는 동짓날이 지나면 해가 다시 길어지듯이, 성인의 말씀을 담은 六經이 건재하는 한 서양의 종교적 침투로 빚어진 오늘날의 위기는 일시적인 것일 뿐 장차 극복되고 말리라는 것이다. 또한 그는 중국에서 南北朝 시대에 그토록 성행했던 불교가 쇠퇴하고 만 사실을 들어, 기독교도 그와 같은 운명을 면치 못하리라고 보았다. 나아가 박규수는 이러한 낙관적 전망의 근거로서, 서양인

들이 말래카와 싱가폴에 각각 英華書院과 堅夏書院을 세우고 『論語』와 『孝經』 등 유교 경전들을 수입·번역한 사실을 돈다.

듣자하니 말래카와 싱가폴에	傳聞馬六新嘉坡
書院이 있어 문자를 번역한다는데	繙繹文字有書院
마치 『논어』나 『효경』의 문장을	頗似論語孝經文
가나(假名)로 일본어 적듯이 한다네	伊呂波寫日本諺
책상자들을 바다로 실어 나르는데	縹籤綳帙走海航
그 양을 계산하면 해마다 수만권이라네	歲課動計書萬卷
異端이 유교를 표절함은 옛부터 있던 법	異端剽竊古來有
제멋대로 꾸미고 잘난 체 뽐내게 두라	任他文飾恣誇眩
오랜 세월 뒤에 특출한 인물 나온다면	久後生出魁傑人
私智에 집착한 것 뒤늦게 깨닫고 부끄러워하리라	慚愧晩覺私智穿
이 세계 어느 곳의 인류이든지	環瀛匝地血氣倫
귀순하여 같은 문자 쓴다면 夷가 아닌 華로 되리라	歸我同文夷一變

해외의 宣敎基地에서 서양 改新敎 선교사들이 유교 경전을 수입하여 영어로 번역한 사실은 『해국도지』에 소개되어 있다. 박규수는 이러한 번역 작업의 목적이 유교를 표절한 더욱 교묘한 교리를 개발하는 데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그는 이를 통해 서양인들이 유교에 오래 접하다 보면, 도리어 그에 감화되어 기독교의 한계를 깨닫는 출중한 인물이 언젠가 나오리라고 믿었다. 그리고 서양인들일지라도 유교에 귀의하고 漢字를 공유한다면 중화 문명의 일원으로 될 수 있다고 하여, 東西交涉의 결과 세계의 모든 인류가 중화 문명 속에서 하나가 되는 미래를 그려보였다. 이는 그가 1840년대 말 50년대 초에 쓴 「闢衛新編評語」와 「地勢儀銘幷序」에서 표명했던 낙관적 전망을 여전히 견지하고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16)

1월 18일 열하 문안사가 서울을 떠나 4천리의 장도에 올랐다. 2월 9일 龍川에 도착한 뒤 아우 朴瑄壽에게 보낸 편지(17)에서, 박규수는 내일 義州에 도착할 예정임을 알리면서, "듣자하니 서울이 공연스레 시끄러우며 유언비어

(16) 김명호, 1995 「환재 박규수 연구(3): 은둔기의 박규수 下」, 『민족문학사연구』 8호, 156-8면 ; 1996 「박규수의 '지세의명병서'에 대하여」, 『진단학보』 82호, 254-6면 참조.

(17) 後孫家 소장.

가 돈다는데, 과연 그런지 모르겠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충고했다. 북경사변의 여파로 여전히 서울의 민심이 동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 別紙에서는 조부 연암이 연행 당시 馬頭로 고용한 郭山 사람 張福의 후손을 찾았음을 알리고 있다.

2월 14일 아우에게 보낸 편지[18]에서 그는 "일행 중 사람마다 집안 편지를 받고는 서울이 유언비어로 술렁인다고 떠든다. 그런데 자네는 한마디도 이를 언급하지 않으니 내가 멀리서 우려할까 봐 그런 것인가? 그렇다면 이 또한 가소로운 일이다"라고 豪氣있게 말했다. 북경사변 소식으로 동요된 민심이 아직도 진정되지 않은 듯하다. 이어서 그는 18일에 압록강을 건널 예정이라고 알리면서, "장복의 후손 한 사람을 찾아 만났는데, 장차 데리고 가게 되어 기쁘다"고 하였다.

2월 19일 아우에게 보낸 편지[19]에서 박규수는, 간밤에 湯池子에서 천막을 치고 노숙했으며, 이 날 정오에는 국경 도읍인 柵門에 당도할 예정임을 알리고 있다. 2월 23일 黃家莊을 출발하여 連山關에서 숙박하며 보낸 편지[20]에서는, 앞으로 2~3일 후면 "年使" 즉 申錫愚가 인솔하는 冬至使行과 만날 것으로 예상하면서, 그 편에 다시 편지를 보내겠다고 했다. 2월 26일 爛泥堡에서 열하 문안사행은 동지 사행과 상봉하게 되었다. 그때 신석우는 박규수에게 "북경에 머물며 교유하던 즐거움"을 이야기하였으며, 아울러 북경에서 사귄 程恭壽·沈秉成 등에게 박규수를 적극 소개하는 편지를 써주었다.[21]

2) 北京에서

3월 16일 열하 문안사는 북경에 도착했다. 그에 앞서 조선이 문안사를 파견했다는 보고에 접한 청 함풍제는 2월 25일 건강상 이유로 사신을 접견할 수 없으니 열하의 行在所까지 오는 것을 면제한다는 勅諭를 내렸다. 북경

(18) 『환재집』 권8, 「與溫卿」(12).
(19) 후손가 소장.
(20) 후손가 소장.
(21) 『환재집』 권5, 「禮曹判書申公謚狀」, 장29뒤 ; 『海藏集』 권15, 「又(與程少卿書)」, 「又(與沈翰林秉成書)」(2).

도착 후 조선 사행은 두차례의 狀啓를 보내, 북경 귀환을 가을로 연기한다는 함풍제의 칙유와 조선 사신의 열하 禮訪을 면제한다는 칙유를 조정에 보고했다. 그런데 북경사변으로 인해 청의 행정 기강이 무너져 열하로 上奏하는 데 열흘씩이나 걸리는 지경이었으므로, 조선 사행은 북경에 도착한 지 한달여가 지난 4월 22일에야 겨우 表咨文을 呈納할 수 있었으며, 숙소인 玉河館에 50여일 간이나 장기 체류하게 되었다. 그 사이 일행은 폐허로 변한 원명원·暢春園 등지를 둘러보고 정세를 탐문하는 한편, 명승 고적을 관광하거나 중국 인사들과 교유하는 등으로 시간을 보냈던 듯하다.(22)

그 해 4월경 북경에서 박규수는 당시 중국의 정세에 대한 보고 편지(23)를 비변사로 보냈다. 이 편지에서 그는 우선 청의 극심한 민란에 관해 보고했다. 各省에서 비적들이 창궐하고 있으나 僧格林沁·曾國藩 같은 명장들도 대적하기 힘들어 하며, 그 중 특히 石達開가 이끄는 '粵匪' 즉 太平天國軍과 張樂行의 잔당인 '捻匪'가 "心腹之患"이라고 하였다.

다음으로, 그는 북경의 서양인과 기독교에 관해 보고했다.

> 서양 오랑캐는 그 의도가 토지에 있지 않으며, 通商과 포교에 전력할 따름이다. 북경에 들어온 후 親王의 궁전을 점거하든지, 주민의 집을 사든지 하여, 사는 집을 넓히는 것이 마치 영구히 안주할 계책인 것 같다. 식구를 거느리고 가구를 운반하여 오는 자들이 날마다 줄을 잇고 있다. 그러나 우선은 침탈로 인한 소요를 일으키는 폐단은 없다.
>
> 그러므로 북경 시민들이 처음에는 자못 의심하고 겁먹다가, 한참 지나서는 점차 익숙해지고 안심하면서, 그들을 심상하게 대하며 서로 물건을 사고 판다. 다만 그들이 제 뜻대로 방자하게 굴어도 아무도 뭐라 하지 못한다. 실로 후환이 어느 지경에 이를지 모르겠다.
>
> 소위 洋敎는 비록 敎館을 세우고 解禁이 되었어도 호응하는 자가 없다. 오직 건

(22) 『일성록』, 철종 12년 6월 19일, 정사 조휘림의 보고 ; 『淸史稿』 권20, 「文宗本紀」, 11년 辛酉 2월조 ; 李裕元, 『嘉梧藁略』 권11, 「熱河使免詣行在回咨」 ; 鄭元容, 『袖香編』 권6, 「熱河使自京復路」 ; 『환재집』 권9, 「與南子明」(1), 장24뒤, 「與南子明」(2), 장26앞 ; 권10, 「與薛淮生春黎」, 장15앞 참조.

(23) 『龍湖閒錄』 제12책에 수록된 「別使先來便錄紙」와 『稗林』 「철종기사」, 12년 6월조에 실린 「熱河副使朴珪壽抵人書」 2종이 전하는데, 일부 誤·脫字가 있거나 축약되었다. 따라서 여기서는 兩者를 校合한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편, 1996 『瓛齋叢書』 권5, 「熱河副使時抵人書」를 인용하기로 한다.

달 무뢰배 중에서 남녀의 구별이 없음을 즐기고 재물을 대주는 것을 탐하여, 몰래 학습하는 자가 간혹 있을 뿐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박규수는 우선 영국 등 서양 諸國이 중국의 영토보다는 통상과 포교에 관심이 있다는 점을 지적한 후, 따라서 약탈을 하지 않으므로 북경 시민들이 안도하고 있음을 보고했다. 단 북경조약의 결과 서양인들이 북경에 자리잡기 시작하고 치외 법권을 누리고 있는 점이 장차 우려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포교가 허용되었어도, 기독교의 중국내 전파가 극히 부진한 실정임을 전했다.

또한 그는 청의 內政에 대해서도 분석·보고했다. 신임받는 重臣으로 공친왕과 桂良 외 승격림심·증국번·勝保 등이 있으나 간신들이 실권을 쥐고 그들을 모함하고 있으며, 관직 임명에 뇌물이 횡행하여 조정의 기강이 해이되었다. 게다가 군대는 군량이 부족하여 사기가 떨어지고 백성에 대한 탐학을 일삼으니, "그 형세를 보건대 朝夕을 보전하지 못할 듯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겉모습을 보면 평안하여 아무런 소요가 없는 듯하다. 旅館이 廢絶되지 않고 시장도 전과 다름없으니, 역시 대국의 풍모를 보겠다"고 하였다. 청조의 장래를 매우 비관적으로 진단하면서도, 현상적으로는 중국의 민심이 안정되어 있음을 강조한 점이 주목된다.

이와 아울러 박규수는 함풍제의 병환이 위중한 사실과 후일 同治帝로 등극하게 되는 어린 皇長子의 근황을 보고했다. 그리고 함풍제가 조선의 문안사행을 가상하게 여겨, 應賞從人(施賞 대상인 수행원)들에게 別賞을 내린 외에도 無賞從人(施賞 대상이 아닌 수행원) 146명에게까지 은 4냥씩의 特賞을 내렸으니 "이는 근년에 없던 바이다"라고 낭보를 전했다.

북경사변으로 인한 청의 행정 마비로, 조선 사행의 귀국도 차질을 빚어 매우 지체되었다. 그러나 관광을 하는 데는 편의를 얻은 셈이었다. 단 교제할 만한 인사들이 대부분 고향으로 돌아갔거나 황제를 쫓아 열하로 갔기 때문에, "가위 너무나 적막하였다"고 한다.[24] 비록 그렇기는 하지만, 박규수는 당시 북경에서 沈秉成[25]·董文煥[26]·王拯[27]·黃雲鵠[28]·王軒[29]·馮志沂[30] 등

(24) 『환재집』 권9, 「與南子明」(1), 장24뒤.

(25) 자 仲復, 1822?~1895. 진사 급제 후 翰林編修·侍講·侍讀을 거쳐 지방관으로

과 교분을 맺을 수 있었다. 여기에는 앞서 언급한 신석우의 소개 편지가 적지 않은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박규수가 북경에 도착하여 "중국의 여러 명사들을 만났더니 모두 신석우를 推服하여 鉅儒 偉人으로 여기고 충심으로 칭찬하더라"고 하였다.(31)

3월 28일 박규수는 심병성·동문환·왕증·황운곡·왕헌과 함께 북경 慈仁寺 내의 顧炎武 祠堂을 참배하고 詩酒의 모임을 가졌다. 宣武門 밖에 있는 자인사는 '報國寺'라고도 하는데, 遼나라 때 창건되었으며 청 건륭 19년(1754년)에 중수되었다. 明·淸 시대에 자인사는 거대한 규모를 자랑하는 북경의 名刹이자 書市가 열리던 곳으로서, 學人들을 비롯한 유람객으로 항상 붐비던 "禪林 중의 일대 도회"였다.(32) 淸初인 康熙 7년(1668년) 북경에 온

나가 薛政을 폈으며, 영달하여 廣西巡撫·安徽巡撫·兩江總督 등을 지냈다. 金石書畵를 애호하여 古器와 古書를 많이 수장했으며, 만년에는 經古書院을 창설하여 考證學風의 진작에도 힘썼다. 『續碑傳集』 권31, 俞樾 撰, 「安徽巡撫沈公墓志銘」 참조.

(26) 호 硯秋(硏秋)·硯樵(硏樵), 1833~1877. 진사 급제 후 翰林檢討를 거쳐 외직으로 나가, 甘肅省 甘凉兵備道·秦鞏階道 등을 지냈으며, 저서로 『硏樵山房詩集』 『硏樵山房文集』 등이 있다. 『해장집』 권16, 『入燕記』, 「日下交遊錄」 ; 翁同龢, 「董文渙墓誌銘」, 董文渙, 1996 『韓客詩存』, 北京: 書目文獻出版社 참조.

(27) 原名 錫振. 자 定甫, 호 少鶴·渝齋·龍壁山人. 1815~1876. 진사 급제 후 戶部郎中·代理寺少卿·太常寺卿·通政使를 지냈다. 梅曾亮을 師事했으며, 古文뿐 아니라 詩와 詞에도 뛰어났다. 저서로 『成有渝齋文鈔』 『龍壁山房詩文集』 『茂陵秋雨詞』 등이 있다. 『淸史稿』 권423, 「王拯傳」 ; 『淸史列傳』 73, 文苑傳 4 등 참조.

(28) 자 翔雲·紹芸·祥人, 호 駿雲. 진사 급제 후 刑部主事·兵部郎中·馬館監督을 거쳐 雅州知府·知成都·建南道署鹽茶道·四川按察事로서 善政을 폈으며, 致仕後 鍾山書院·江漢書院의 主講을 지냈다. 『碑傳集補』 권18, 「黃雲鵠傳」 참조.

(29) 자 霞學, 호 顧齋·固齋. 1823~? 진사 급제 후 兵部主事로서 북경에 머물며 孔憲彝·祁寯藻 등 당대의 名士宿儒와 교제했으며, 宏運書院·晉陽書院 등의 主講을 지냈다. 詩文이 奇崛하여 一家를 이루었을 뿐 아니라, 고증학에도 힘써 특히 文字學과 數學에 밝았다. 저서로 『耨經廬詩集』 『顧齋詩錄』 등이 있다. 『續碑傳集』 권80, 「王軒傳」 참조.

(30) 자 魯川·述仲, 호 微尙齋·適適齋. 1814~1867(?) 진사 급제 후 刑部主事를 거쳐, 廬州知府·徽寧池太廣道 등 지방관을 轉轉하며 선정을 폈다. 梅曾亮을 사사하여 그의 高第弟子로 일컬어졌고, 저서로 『微尙齋詩文集』 『適適齋文集』이 있다. 『청사열전』 권73, 문원전 4, 孫鼎臣 附馮志沂 ; 『續碑傳集』 권37, 「馮志沂傳」 ; 劉聲木, 『桐城派文學淵源考』 권7, 풍지기條 참조.

(31) 『환재집』 권5, 「禮曹判書申公諡狀」, 장29뒤.

고염무가 이 절에 머문 적이 있었다. 이에 그를 흠모하는 후학 何紹基·張穆·朱琦 등이 주동이 되어 道光 23년(1843년) 자인사 경내에 그의 사당을 건립했으며, 이듬해부터 춘추로 제사를 올렸다. 그 후 고염무 사당은 장목과 절친했던 金正喜와 李尙迪 등 북경에 온 조선의 문사들도 즐겨 찾는 名勝이 되었다고 한다. 1849년 장목이 타계하자 고염무 사당에 陪祀되었으므로, 박규수는 그곳에서 만난 중국 인사들과 함께 장목의 神位도 참배했다.(33)

박규수는 귀국한 지 수년이 지난 1863년 경 화공을 시켜 그리게 한 「顧祠飮福圖」에 부친 글에서 당시의 만남을 다음과 같이 회상했다.

> 두루마리 그림 중의 사람 가운데 종이를 펴고 書案에 의지하여 붓을 들어 글을 쓰려는 사람은 戶部郞中 王拯 少鶴이다. 蠅拂을 쥐고 무언가 심사숙고하는 이는 兵部郞中 黃雲鵠 緗雲이다. 서서 응시하고 있는 이는 翰林檢討 董文煥 硏樵이다. 부채를 쥐고 의자에 앉아 있는 이는 廬州知府 馮志沂 魯川이다. 노천의 오른쪽에 앉은 이는 翰林編修 沈秉成 仲復이다. 노천과 마주하여 앉은 이는 兵部主事 王軒 霞舉이다. 서안에 의지하여 몸을 구부리고 미소짓는 이는 朝鮮 副使 박규수 瓛卿이다. 노천은 당시 열하로 부임하여 아직 돌아오지 않았기에 대신 보충하여 그려 넣었다.
>
> 옛날에 亭林(고염무의 호-인용자)선생이 북쪽으로 여행하다 都下에 이르러, 城 서쪽의 자인사에 머문 적이 있었다. 후학들이 그 남긴 발자취를 추모하여 道光 癸卯年에 자인사의 서남쪽 모서리에 사당을 세우고 선생을 제사했다. 道州(湖南省 道縣) 사람 何子貞(子貞은 何紹基의 字)군이 실로 처음에 건립을 추진했다고 한다.
>
> 규수는 일찍부터 선생의 학문을 숭상했다. 咸豊 辛酉年에 使命을 받들고 북경에 와서, 운좋게도 여러 군자들을 좇아 삼가 선생을 참배하고, 특별히 한차례의 제사를 마련한 후 물러나 禪房에서 飮福하면서, 그들과 함께 古音의 正訛와 經學의 興衰를 논했다. 대개 교제하면서 感慨했으며, 즐거움 또한 억누를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34)

자인사에서 만난지 며칠 뒤 박규수는 심병성의 書樓에서 다시 한 번 그

---

(32) 劉侗, 『帝京景物略』 권3, 「報國寺」 ; 孫殿起, 1962 『琉璃廠小志』, 北京出版社, 250-70면 ; 1985 『中國歷史文化名城詞典』, 上海辭書出版社, 50면 ; 『열하일기』 「盎葉記」, '報國寺'조, 『연암집』 권15, 장27뒤~28앞 참조.

(33) 董文煥, 『韓客詩存』, 「三月二十八日與仲復同年置酒慈仁寺邀同少鶴緗雲霞擧并朝鮮朴瓛齋侍郎展祭顧師分賦」 ; 王軒, 『顧齋詩錄』 下, 「三月二十八日朝鮮副使朴瓛齋侍郎展謁顧祠並拜石州先生栗主沈仲復編修硏秋召集同人置飮賦贈」 ; 藤塚隣, 1975 『淸朝文化東傳の硏究』, 東京: 國書刊行會, 471-3면 참조.

(34) 『환재집』 권11, 「題顧祠飮福圖」.

들과 시주의 모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열하에서 돌아온 뒤 여주지부로 부임을 앞두고 있던 풍지기까지 참여했다. 이때 지은 5언 160행의 장편 古詩[35]에서 박규수는, 우선 조선이 중화 문명의 일원으로서 유구한 역사를 가졌음을 소개했다. 즉, 조선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上古부터 성인의 교화를 입은 나라로서, 『논어』에 나오는 바 공자에게 거문고를 가르쳤다는 樂師 襄이 은둔한 곳이며, 공자가 無道한 중국을 떠나 뗏목을 타고 가고 싶어 했던 곳이고, 箕子가 백마를 타고 와 정착한 지역이라는 것이다.

또한 이 시에서 박규수는 북경에 도착한 후 의기 투합하는 벗들을 만나게 되었다고 하면서, 심병성 등 중국 인사들과 고염무 사당에서 처음 만나던 날의 광경을 이렇게 노래했다.

선생의 遺像은 엄숙하고 淸高하며	遺像肅淸高
峨冠 博帶의 儒生 차림이라	峨冠衣帶褒
분향하며 절하고 싶건만	欲下瓣香拜
누구와 은근히 상의할꼬?	慇懃誰與謀
때마침 여러 군자를 만나니	邂逅數君子
선생을 사숙하여 학문이 넉넉한 官人들이라	私淑學而優
하늘의 인연이 교묘히 맞아 떨어져	天緣巧湊合
나를 그윽한 禪房에서 기다리더라	期我禪房幽
서로 揖하고 선생을 拜謁한 뒤	相揖謁先生
옷자락을 걷고 堂에 올랐네	升堂衣便摳
제기에는 햇과일을 올렸고	籩實薦時品
술잔에는 조선 술을 따라 바쳤네	爵酒獻東翁

이어서 그는 "顧氏의 門徒"인 이들 중국 인사의 학문과 문장을 예찬했다. 특히 뒤늦게 모임에 합류한 풍지기에 대해서는, 桐城派의 大家로 이미 작고한 梅曾亮의 뒤를 이어 문단의 맹주가 되리라고 칭송했다.

끝으로, 이 시에서 박규수는 중국의 현 정세를 우려하면서 서양 침략에 함께 대적할 결의를 다졌다.

이곳 북경 일대를 돌아보니	眷茲畿甸內

(35) 『환재집』 권3, 「顧祠會飮賦贈沈仲復諸公」.

오랑캐의 나쁜 기운 아직 걷히지 않았네	夷氛尙未收
재주가 요것뿐이냐고 오랑캐야 얕보지 마라	莫謂技止此
북경은 福建이나 浙江과는 다르니라	三輔異閩甌
백리에 걸쳐 오랑캐 군대 흰 눈처럼 뒤덮어	百里見積雪
杜甫가 크게 탄식하였는데	杜老歎咿嚘
게다가 또 邪說을 끼고서	況復挾邪說
온갖 속임수 부려 침투하누나	浸淫劇幻譎
우리 힘을 다해 밝은 덕을 숭상하며	努力崇明德
도를 지키고 해충을 제거합시다	衛道去螟蝗
물소뿔 횃불로 물속 요괴 살핀다면	燃犀觀水姦
황당무계함을 어찌 감출 수 있으리?	怪詭焉能廋
우리 유교에 이런 사람 있다면	斯文若有人
나머지 일은 걱정할 것 없소이다	餘事不足憂

이와 같이 박규수는 제2차 아편전쟁의 패배에도 불구하고 청이 북경에서 서양 세력을 몰아낼 수 있는 군사력을 지니고 있다고 본 듯하다. 단 서양 세력은 종전의 오랑캐들과 달리 군사적 침략뿐 아니라 종교적 침투를 겸하고 있으므로, 투철한 유교 이념에 비추어 기독교의 허위를 논파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斥邪論을 확고히 견지한다면 서양의 침략도 쉽게 물리칠 수 있으리라고 중국 인사들을 격려했다.

한편 박규수는 자인사 부근의 松筠庵에서도 왕헌·황운곡·동문환 등과 함께 모임을 가졌다. 송균암은 '楊椒山祠'라고도 불리우는 楊繼聖의 옛집으로, 역시 북경 宣武門 밖에 있었다. 양계성(호 椒山, 1516~1555)은 明末 南京政府의 兵部右侍郎으로, 간신 嚴崇의 전횡을 탄핵했다가 처형된 인물이다. 청 건륭 51년(1786년) 송균암이 양계성의 옛 집임이 알려지면서, 이듬해 여기에 그의 초상과 位牌를 모신 사당이 건립되었다. 그 뒤 道光 28년(1848년) 사당의 서남 쪽에 다시 양계성의 諫言 草稿를 벽에 새긴 諫草亭이 세워졌다.[36] 당시 박규수는 양계성의 사당을 참배하고, 그의 諫草를 탁본했다.[37]

박규수는 文丞相祠와 法源寺도 유람했다. 文天祥의 사당인 문승상사는 북

(36) 『中國歷史文化名城詞典』, 36면 참조.
(37) 『환재집』 권4, 「敬題楊椒山楊應山二先生遺墨後」 : 권10, 「與王霞學軒」(1)(3) 참조.

경 성안 동북쪽의 順天府學 내에 있었다. 문천상(1236~1283)은 南宋의 右丞相으로, 元과 싸우다 포로가 되어 大都(북경)로 끌려와 柴市에서 처형되었다. 明初인 1376년 북경 柴市 부근에 그의 충절을 추모하여 세운 사당이 바로 문승상사이다.(38) 아마 박규수는 연행에 오를 때 중국 명사들에게 소개하고자 조부 연암의 글들을 뽑은 문집을 휴대했을 뿐 아니라, 『열하일기』 중의 한 명문인 「文丞相祠堂記」를 자신의 글씨로 손수 써서 가지고 갔던 것으로 짐작된다. 그리고 북경에 도착하자 문승상사를 유람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와 교분을 맺은 심병성에게 연암의 「문승상사당기」가 문천상사에 게시되도록 주선해 줄 것을 당부하기까지 했던 듯하다. 박규수는 귀국 이후 심병성에게 보낸 한 편지에서, 그의 주선 덕분으로 연암의 「문승상사당기」를 쓴 "拙筆"이 문승상사에 게시되기에 이른 데에 감사하면서, "조부의 이 글은 곧 平心으로 천하를 위해 公論을 제기한 것이니, 사당에 참배하러 온 중국의 선비 중에는 이를 보고 정확한 논의라고 칭찬하는 이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 자부했다.(39)

법원사는 북경 성안에서 가장 오래된 名刹로서 선무문 밖에 있었다. 당나라 때인 696년 창건 이후 누차 중건되었으며, 청 雍正 12년(1734년) '崇福寺'라는 명나라 때의 절 이름을 법원사로 바꾸었다. 이 절은 광대한 경내에 건물과 중요 불교 문화재가 대단히 많을 뿐더러, 특히 원나라 초에 송 遺臣 謝枋得이 殉節한 곳으로 유명하다.(40)

박규수의 북경 유람 중에서 특히 주목할 것은, 그가 慈壽寺와 長椿寺를 찾아 明 神宗의 母后인 孝定太后 李氏와 穆宗의 모후인 孝純太后 劉氏의 遺像에 참배한 사실이다. 후일 萬東廟 철폐 중지를 촉구한 상소(41)에서 박규수는 "臣이 여러해 전 북경에 사신으로 갔을 때, 효정 이태후와 효순 유태후의 유상을 자수사와 장춘사 두 절에서 참배했습니다. 제사는 중에게 맡겨져 있

(38) 『帝京景物略』 권1, 「文丞相祠」 : 『열하일기』, 「謁聖退述」, 順天府學 및 文丞相祠조, 『연암집』 권15, 장19뒤, 장23앞뒤 참조.
(39) 『환재집』 권10, 「與沈仲復秉成」(2), 장6앞, 「與董硏秋文煥」(1), 장28앞.
(40) 『中國歷史文化名城詞典』, 46면 : 『열하일기』, 「앙엽기」, '崇福寺'조, 『연암집』 권15, 장33앞뒤 참조.
(41) 『환재집』 권6, 「請還寢萬東廟停撤疏」.

었지만, 漢人 朝臣들은 모두 경건한 태도로 탄식하면서 우러러 보았습니다. 두 태후를 신종과 의종의 모후라고 했습니다. 오호라! 皇明의 깊은 인자함과 두터운 은택이 아직도 말소되지지 않아, 천하 사대부들이 마음 속으로 아아, 이처럼 잊지 못하는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자수사는 북경 서쪽 阜成門 밖 八里庄에 있었다. 명 萬曆 4년(1576년)에 건립되었으나, 청 이후 점차 훼손되어 현재는 유명한 13층 永安萬壽塔과 石碑만 남아 있다. 명 신종이 그의 생모인 효정태후를 위해 세웠다는 이 절의 後殿에는 九蓮菩薩로 그려진 태후의 영정이 모셔져 있었다.(42)

박규수가 자수사를 방문했을 당시 절은 이미 피폐하여 잡목이 우거지고 기와 조각만 남아 있었다. 그리고 하늘을 찌를 듯이 솟은 13층탑의 동서쪽에는 각각 紫竹觀音像과 魚籃觀音像을 새긴 두개의 석비가 세워져 있었는데, 이 관음상들 역시 효정태후의 모습을 본뜬 것이었다고 한다. 후전의 구련보살상 즉 효정태후의 영정은 청 嘉慶 年間에 뜻있는 인사들에 의해 보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먼지와 그을음으로 변색된 채 낡아가고 있었다. 박규수는 이 영정을 참배한 후 탄식하고, 성금을 기탁하여 이를 다시 보수하게 하고 싶었으나 "나그네라 자금이 부족하여 작은 정성이나마 표할 수 없음을 남몰래 한스러워 하였다"고 한다. 후일 평안감사 재직시에 박규수는 중국으로 백금 오십냥을 보내, 숙원이던 이 영정 보수 사업을 기필코 완수하게 된다.(43)

북경 성 남쪽에 자리한 장춘사는 명 만력 중에 효정태후가 어느 유명한 苦行僧을 위해 창건한 절로서, 나중에 명의 마지막 황제인 의종의 생모 효순태후의 영정이 여기에 봉안되었다.(44) 만년에 홍양후에게 답한 편지에서 박규수는, 1826년 동지사행에 참여한 홍양후가 장춘사에서 효순태후의 유상에 절한 적이 있다고 한 데 대하여, "장춘사의 劉太后 유상은 저도 또한 일찍이 참배한 적이 있습니다. 이를 받들어 모신 상자를 보니 그 안에 새로

(42) 『帝京景物略』 권5, '慈壽寺'조 ; 『中國歷史文化名城詞典』, 59면 ; 『환재집』 권4, 「孝定皇太后畫像重繕恭記」 참조.

(43) 『환재집』 권4, 「孝定皇太后畫像重繕恭記」 ; 권9, 「與洪一能」 ; 권10, 「與沈仲復秉成」(4) ; 尹定鉉, 『梧溪遺稿』 권4, 「孝定李太後像幀改裝記」.

(44) 『帝京景物略』 권3, 城南內外, 「장춘사」조.

摹寫하여 마치 어제 완성된 듯한 그림이 있었습니다. 이상히 여기고 主僧에게 물었더니, '舊本이 바래었기에 다시 모사하여 공양하고 있습지요. 그런데 지금 참배하러 찾아온 東國의 大人(高官-인용자)을 만났으므로, 구본을 꺼내 게시한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감동적이었을 뿐 아니라, 또한 이를 통해 華人(漢族)의 마음이 아직도 명나라 황실에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였다.(45)

이와 같이 명승 고적을 두루 유람하는 한편으로, 박규수는 북경에서 사귄 중국 명사들에게 조부 연암의 글들을 소개하는가 하면, 자신의 글에 대한 비평도 요청했다. 풍지기는 박규수의 글에 대한 평어에서 "연암의 文鈔를 거듭 읽어 보니" 박규수의 글이 家學에서 유래함을 알겠다고 했다. 동문환 역시 "연암의 문집을 읽고" 홍대용이 일찍이 地轉論을 주장했음을 알았을 뿐더러 박규수의 「地勢儀銘」이 가학에서 유래함을 徵驗할 수 있었다고 했다. 즉 「지세의명」은 『열하일기』에 소개된 바 홍대용과 연암의 地球地轉說을 계승한 글이라 본 것이다. 그리고 왕헌은 박규수의 「答金德叟論箕田書」가 가학에 근본을 두었다고 하면서, "지금 先德(연암-인용자)의 저술을 보니" 그 중에 '주(疇)'자가 '전(田)'字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는 자신의 설과 부합하는 주장이 있음을 발견하고 몹시 기뻤다고 했다. 이는 박규수의 箕子井田에 관한 견해나, 왕헌 자신의 文字說이 연암의 『課農小抄』에 수록된 「箕子田記」 중의 내용과 상통함을 지적한 것이다.(46)

박규수는 자신의 글 가운데 「지세의명」과 「答金德叟論箕田書」, 그리고 「闢衛新編評語」와 「眞宗大王祧遷當否議」 4편을 뽑아 북경에 가지고 갔던 듯하다.(47) 이러한 글들에 대해 황운곡은 總評하기를 "질박하면서도 깊은 맛이 있고, 논쟁을 벌이면서도 차분하다. 옛말에 '글이 사람을 닮는다'고 한 것이 헛말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심병성은 "학문에 뿌리가 있으므로, 말에 군

(45) 『환재집』 권9, 「與洪一能」, 장22뒤.

(46) 『환재총서』 권5, 「朴瓛齋文」, 358-62면.

(47) 당시 지은 王軒의 시(『顧齋詩錄』 下, 「三月二十八日朝鮮副使朴瓛齋侍郎展謁顧祠並拜石州先生栗主沈仲復編修硏秋召集同人置飮賦贈」)에 "箕田老種驗土宜, 瀛海四游悟地轉, 議禮況補先賢缺, 闢邪深憂薄俗慢"이라 하여, 박규수의 上記 4편의 글을 거론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더더기가 없다. 글이 몇편밖에 되지 않으나, 수천년을 오르내리고 2만리를 종횡으로 누벼, 모두 눈 앞에 삼삼하다"고 평했다. 동문환은 "本體에 밝고 活用에 통달하여, 잘 쓰려고 애쓰지 않았는데도 글이 저절로 잘 되었다. 이는 진실로 經術에 깊이 심취한 데에 기인한다. 그러므로 정밀한 의리가 장려한 문장으로 남김없이 성취되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왕헌은 "원래 經術에 근본을 두었으며, 말에는 실질적인 내용이 있으니, 모두 시행할 만 하다. 漢儒의 訓詁名物과 宋儒의 性道義理를 융합하고 수정하여, 결코 학파를 차별하는 편견이 없다. 오늘날 師承을 고집하면서 서로 비난하고 비웃는 사람들은 이 글을 대하면 부끄러워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칭송했다.[48] 이같은 평어들은 모두 經學에 대한 박규수의 깊은 조예와 그에 바탕을 둔 뛰어난 문장을 예찬한 것이다.

그밖에, 박규수는 예전에 연행을 앞둔 홍양후에게 당부했던 대로,[49] 그 자신도 중국에서 漢族 고유의 婦人服飾을 관찰하고 그 제도를 몸소 조사하고자 했던 것 같다. 만년에 홍양후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는 조부 연암이 蒙古風을 답습한 조선의 부인 복식을 중화의 제도로 개혁할 것을 주장한 바 있으며, 자신도 이를 계승하여 초기 저술인 『居家雜服攷』에서 부인 복식에 대한 개혁안을 제시했으나,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다고 하였다. 이어서 그는 "예전에 북경에 이르러 또한 중화의 제도를 목도했으며, 교분을 맺은 여러분들에게 남북간의 풍속에 따른 차이를 여쭈어 미상불 자세하고도 정확히 알았지만, 역시 空言에 그치고 말았습니다"라고 술회했다.[50] 연행 당시인 1860년대에도 박규수는 연암의 지론을 계승한 衣冠制度改革論[51]을 여전히 견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48) 『환재총서』 권5, 「박환재문」, 359-62면.
(49) 『환재총서』 권5, 『莊菴文稿』 권1, 「與洪一能良厚書」, 別紙, 309-310면.
(50) 『환재집』 권9, 「與洪一能」, 장21뒤-22앞.
(51) 김명호, 1994 「환재 박규수 연구(2): 은둔기의 박규수 上」, 「민족문학사연구」 6호, 47-60면 참조.

3) 歸國

단오절 다음날인 5월 6일 심병성·동문환·왕헌이 찾아와 귀국을 앞둔 박규수와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이 때 왕헌과 동문환이 송별시로 절구 1수씩을 지어 주자, 박규수도 이에 부응하는 절구 2수를 지었다. 그 중 왕헌의 절구에 화답한 시에서 그는 "이별 뒤에 그리워하면 부질없이 마음만 아파 / 인연따라 만나고 헤어짐을 굳이 논할 것 있나 / 諫草 새긴 사당 앞의 대나무만이 / 다시 올 땐 푸르게 뜰을 채우리"라고 하였다.(52) 양계성의 간초가 새겨진 송균암을 함께 유람한 사실을 들어, 서로 다시 만날 때까지 대나무처럼 변함없이 충절을 지키며 살아가자는 뜻을 부친 것이다.

박규수는 북경 체류 중에 심병성의 서루를 누차 방문하는 등 그와 가장 자주 만나 두터운 교분을 맺었다. 조선 사행의 귀국이 임박하자 심병성은 다시금 자신의 서루에서 벗들과 함께 박규수를 위한 전별연을 벌였다.(53) 이 자리에서 그는 唐 陸龜蒙의 小品文을 모은 『笠澤叢書』를 박규수에게 증정하면서, 자신의 고향인 浙江省 歸安 일대의 경치를 설명한 후 이를 그림으로 그려주기를 요청했다. 그의 요청에 못이겨 박규수는 산수화를 그리고 나서, 畵題로 "강은 트이고 하늘 아득해 여유있는 경치로다 / 글씨와 그림 바치노니 마음에 드시는지 / 언젠가 소나무 아래 집 짓고 / 봄바람 맞으며 笠澤의 물고기나 함께 낚았으면"이라는 시를 적었다. 그러자 심병성은 시 중의 '笠澤魚' 3자를 가리키며 한참 탄식했으니, "아마도 時事가 몹시 걱정되어 감정을 감출 수 없었던 듯하다"고 하였다.(54) 입택은 太湖 즉 洞庭湖의 별명으로, 그 인근에 있던 심병성의 고향은 당시 태평천국군의 활동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었기 때문이다.

문안사행은 5월 초순경 북경을 출발하여 귀로에 올랐다. 사행이 만주 瀋陽을 지날 때의 일이었다. 박규수가 밤 하늘을 바라보다가 흰 비단을 펼친 듯한 이상한 별을 발견하고, 旅店 주인에게 물으니 '掃賊星'이라고 답했다.

---

(52) 『환재집』 권3, 「辛酉端陽書贈沈仲復諸公」.
(53) 왕헌, 『顧齋詩錄』 下, 「仲復招集餞朴瓛齋於寓樓仍次前韻賦贈」.
(54) 『환재집』 권3, 「題手畵贈書圖贈別沈仲復」.

어째서 그런 줄 아느냐고 했더니, 몇년전에 이와 같은 별이 나타났을 때 盛京將軍이 榜을 붙여 '소적성이 출현했으니 머지않아 천하의 도적들이 소탕될 터인즉 백성들은 놀라지 말라'고 알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박규수가 보기에 이는 민심을 진정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지어낸 설로서, "남의 나라의 실정을 잘 엿보는 자는 이 한마디 말로 미루어 나머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55) 여점 주인과의 문답을 통해 당시 중국이 비적들의 활동으로 얼마나 크게 시달리고 있는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6월 1일 사행은 압록강을 건너 귀국했다. 이 날 남병철에게 보낸 편지에서 박규수는 "우선 記下生(자신을 가리킴-인용자)이 使命을 받았던 때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중국에 갔다 돌아올 때까지 이미 반년이나 걸려 세월은 이제 여름이 되었지만, 다행히 불같은 더위나 진흙탕길을 만나는 고생없이 의기양양하게 갔다가 의기양양하게 돌아오니, 이는 실로 王靈의 덕분이요, 역시 처음에는 기대하지 못했던 바였습니다"라고 하여, 사명을 완수하고 무사히 귀환하게 된 기쁨을 전했다.(56)

6월 19일 사행은 드디어 서울로 돌아와 復命했다. 이 날 박규수의 벗들이 그를 맞이하여 벌인 小宴에서 申錫禧는 시를 짓기를 "遼東 구름 薊州 눈은 兵塵으로 얼룩졌는데 / 사신은 자중하여 압록강을 건넜구려 / 촛불 아래 수염 눈썹 어제와 똑같은데 / 우리나라 사람들은 再生한 사람인양 대하네"라고 하였다.(57) 이처럼 당시 국내에서는 생사를 기약할 수 없는 고난 속에 연행을 다녀왔던 것으로 인식되었던 만큼, 열하 문안사가 중국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에 관해서도 큰 관심을 기울였을 것임에 틀림없다.

4. 燕行의 성과와 한계

이상에서 1861년 박규수가 열하 문안사로 북경을 다녀온 경위를 살펴 보았거니와, 그 결과 그는 어떠한 對外認識에 도달했던가. 유감스럽게도 이 문

(55) 『환재집』 권9, 「與南子明」(1), 장24뒤-25앞.
(56) 위의 편지, 장24뒤.
(57) 신석희, 『韋史詩稿』, 「朴大史桓卿燕槎復命日少集口號」.

제의 해명에 기여하는 직접적인 자료로는, 앞서 언급한 바 박규수가 북경 체류 중에 비변사로 보낸 편지가 있을 따름이다. 그러므로 이 첫 번째 연행 체험이 박규수의 사상에 끼친 영향을 신중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사 조휘림과 서장관 신철구, 수역 이윤익의 귀국 보고 내용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공식적인 자료들 외에도 중국 여행 당시 박규수의 행적과 사상을 보여주는 그의 시문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하리라 본다.

정사 조휘림은 철종에게 복명하는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중국 정세에 관해 보고했다.(58) 첫째, 10여년째 각 省에서 비적들이 창궐하고 있으나 현재는 소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작년의 대풍에 이어 올해도 풍년인 듯하며, 점포와 민가를 많이 신축하는 것으로 보아 민심이 안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서양 오랑캐는 통행과 교역을 제마음대로 하나 침탈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북경 시민들이 처음에는 자못 의심하고 겁먹다가 한참 지나서는 점차 익숙해지고 안심하면서, 그들을 심상하게 대한다."(59) 서민가나 상가도 예전처럼 평온하며, 전혀 동요하는 기미가 없다. 서양 오랑캐들이 북경을 무시로 왕래하며, 식구를 거느리고 오거나 집을 사서 거주하기도 한다. 소위 천주당은 세 곳이 되는데 지금 보수 중이라고 한다.

셋째, 함풍제는 병환이 위중하다. 그런데 "이번 특별 사행에 대해 格外의 恩賞을 내린 典禮로 보건대, 황제가 우대하는 뜻을 특별히 표시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청의 朝臣이 전하는 바를 들으니, 황제가 '이번 사행은 다른 諸侯國들에서는 없는 바로, 東國만 유독 보냈으니, 이는 옛날의 獨朝之義(단독으로 조공한 의리-인용자)로서, 貴國이 한마음으로 事大하는 정성은 깊이 감탄할만하다. 정말 禮義之邦이다' 운운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철종이 과연 조선 이외에는 특별 사행을 파견한 조공국이 없는 지를 묻자, 조휘림은 그렇다고 답하면서, 아울러 태평천국군의 활동으로 인해 安南國의 조공이 면제된 사실을 전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정사 조휘림의 구두 보고는 앞서 박규수가 북경

(58) 『일성록』, 철종 12년 6월 19일.

(59) "故都民初頗疑惧, 久漸狃安, 視之尋常." 이 구절은 박규수가 비변사로 보낸 편지 중의 문귀와 완전히 동일한 표현이다.

체류 중에 보낸 편지와 대동소이한 내용이다. 서장관의 聞見別單은 이러한 정사의 보고와 박규수의 편지 내용을 14개조에 걸쳐 좀더 상세하게 기술한 것이라 할 수 있고, 수역의 聞見別單은 서장관의 것보다 훨씬 간략한 5개조로 되어 있다. 수역과 서장관의 별단은, 함풍제가 열하로 몽진하게 된 내막으로 서양인들로부터 조약 체결과 관련하여 뇌물을 먹은 간신들의 농간이 작용한 것이라는 설을 추가 보고한 것 외에는, 정사나 박규수의 보고 내용과 거의 일치한다.

그러므로 연행의 결과 박규수가 도달하게 된 대외 인식은 대략 다음과 같은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우선, 그는 청이 만성적인 내우 외환으로 쇠망의 길로 접어들었으며, 관료와 군대의 부패 무능 등으로 인해 이러한 추세를 만회하기 힘들 것으로 본 듯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장기적 전망에도 불구하고, 현 단계에서는 청이 안정을 회복·유지하고 있으며 서양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 듯하다.

박규수가 이처럼 낙관적인 정세관을 지니게 된 요인으로는, 첫째 서양 세력이 영토 점령보다는 통상과 포교에 주력하고 있으며 약탈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 둘째 증국번과 같은 몇몇 名將들의 활약으로 태평천국군과 비적들의 기세가 상당히 수그러든 점, 셋째 이에 따른 중국 민심의 안정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에 추가할 것은, 그가 중화 문명과 유교의 역량을 신뢰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앞서 살핀 대로 박규수가 출국 직전에 지은 시나 북경 체류 중 중국 인사들과의 모임에서 지은 시를 보면, 그는 아편전쟁 이래 서양 세력의 중국 침투를 무엇보다도 기독교 문명과 유교 문명의 충돌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또한 유교의 우월성을 확신하고, 동서 교섭의 결과 도리어 서양이 중화 문명에 감화되는 날이 오리라고 믿었다. 북경조약으로 합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기독교 포교가 매우 부진한 사실은 이같은 박규수의 신념을 더욱 굳혀 주었으리라 짐작된다.

아마 박규수는 자신의 사행이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만족했을 듯하다. 앞서 김윤식은 그에게 바친 증서에서, 청과의 기존 사대 관계를 유지·강화함으로써 서양의 조선 침략에 대비하는 데 문안사 파견의 의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북경사변을 당한 청을 위해 조공국 중

조선만이 위문사절를 파견했다고 하여 함풍제로부터 특별 포상을 받고 '禮義之邦'이라는 칭송을 들은 사실은 커다란 외교적 성과로 평가될 수 있었다. 그러므로 박규수는 압록강을 건너 귀국할 때 남병철에게 보낸 편지에서 '의기양양하게 갔다가 의기양양하게 돌아왔노라'고 사명을 완수한 기쁨을 드러내었던 것이다.

지금까지 학계에는 열하 문안사행의 결과 박규수가 청과의 사대 관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對淸依存的 외교노선을 지향하게 되었다고 보는 설[60]과, 오히려 그러한 외교 노선에 회의하면서 對西洋 정책에서도 진취적인 자세를 취하기 시작했다고 보는 설[61]이 제기되어 있다. 우선, 청과의 사대 관계에 의존하여 서양의 침투를 막고자 한 것은 어느 개인의 독자적인 견해가 아니라 적어도 19세기 이후 조선 정부가 취해온 일관된 외교 노선이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박규수를 포함한 열하 문안사 역시 중국 정세를 낙관적으로 보고했을 뿐 아니라, 위문사 파견에 대해 청이 이례적으로 깊은 감사를 표시한 사실은 조선 정부를 크게 안심·고무시켰을 것임에 틀림없다. 이에 따라 당시 조정의 公論도 청과의 유대 강화를 전제한 위에서 내부 단속에 힘쓰면 무사하리라는 內修外攘論으로 귀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박규수 역시 이러한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으리라고 짐작되지만, 연행 당시 그가 쓴 어떤 글에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분명한 증거가 발견되지는 않는다.

한편 그와 반대되는 설은 박규수의 청국관과 서양관이 연행을 계기로 크게 달라졌다고 본다. 즉 그가 청이 내우 외환으로 극히 쇠약해져 있다고 보고한 것은 종래의 對淸 의존적인 사대주의 외교 노선에 대한 懷疑를 드러낸 것이며, 서양이 영토 점령보다 교역과 포교에 힘쓰며 중국에 영구히 진출하려는 의도를 지닌 것으로 보고한 것 등은, 개방적이고 근본적인 對서양 정책의 필요성을 시사한 셈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열하 문안사행은 "그의 대외 개방의식이 해방론적인 것에서 외교·개국론으로 발전하는"[62]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한다.

---

(60) 原田環, 앞의 책, 99-100면 ; 하정식, 앞의 논문, 194-5면, 225면.
(61) 손형부, 앞의 책, 110-6면.
(62) 위의 책, 124면.

그러나 박규수는 청의 장래를 비관적으로 전망한 것이 사실이지만, 현단계에서는 청이 아직도 안정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리고 이 점에서는 조휘림 등의 보고도 마찬가지였다. 또한 서양이 교역에 치중한다는 정보 역시 박규수만이 보고한 것은 아니다. 김윤식이 贈序에서, 북경사변을 일으킨 서양의 의도가 영토 점령에 있지 않다는 설이나, 포교를 구실로 한 경제문제 해결에 있다는 설을 논박한 것은, 박규수의 연행 이전에도 이미 국내에 그와 같은 여론이 있었음을 뜻한다.

따라서 박규수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서양이 영토 점령이나 약탈을 감행하지 않는다고 보고한 사실만으로, 그의 서양관이 우호적으로 바뀌었으리라 본다면 속단이라 하겠다. 북경조약을 통해 서양의 진출 목적이 아편무역과 기독교 전파에 있는 것으로 인식되었던 만큼, 조선 정부가 절대적으로 禁忌視하는 이러한 문제들이 해소되지 않는 한, 박규수라 할지라도 서양과의 교섭과 문호 개방을 주장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그가 아편전쟁의 의미를 무엇보다도 서양의 종교적 침투에 의한 '문명의 위기'로 파악했던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물론 박규수는 동서 교섭의 장래를 낙관하고 서양과의 접촉을 부정적으로만 보지는 않았지만, 이 역시 어디까지나 서양이 유교와 한자 문명을 받아들일 것을 전제로 한 발상이었다.

종래의 견해들은 이상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외에도, 공식적인 자료에만 의거함으로써 1861년의 연행에서 드러난 박규수의 중요한 사상적 일면을 놓치고 있다. 출국 직전이나 북경 체류 중에 지은 시들, 그리고 특히 '皇明 古蹟'에 집중된 북경 유람의 행적 등을 살펴 보면, 당시 박규수는 1840년대 말 이후 「闢衛新編評語」나 「地勢儀銘」 등에 표출된 사상적 경향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그가 바로 이러한 글들을 자신의 得意作으로 뽑아 가지고 가, 북경에서 교유한 중국 인사들에게 보인 사실로도 단적으로 입증된다 하겠다.

앞서 살폈듯이 박규수는 출국을 앞두고 지은 시에서 아편전쟁기의 중국 정세에 대해, 기독교의 침투로 인한 유교 문명권의 일대 위기로 진단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불교와 같은 과거 異端 종교의 역사, 최근 유교의 해외 전파 사실 등을 들어, 중화의 유교 문명이 일시적 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가

서양인들조차 감복시킬 날이 오리라고 낙관했다. 그리고 북경 체류 중 심병성 등과 교유하며 지은 시에서도, 서양의 침략이 종교적 침투를 겸하고 있으므로 기독교를 배척하고 유교를 지켜 나감으로써 현재의 난국을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이전에 「벽위신편 평어」나 「지세의명」에서 표명한 그 자신의 견해와 합치하는 것이다.

북경 체류 중에 지은 시에서 또 하나 주목할 것은, 樂師 襄과 孔子의 고사, 그리고 箕子東來說을 들어 조선이 중화 문명의 일원으로서 유구한 역사를 지녔다는 자부심을 드러낸 대목이다. 이와 같은 小中華意識은 연행 당시 박규수가 중화의 제도를 고수하고 있는 부인 복식에 깊은 관심을 쏟은 사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중국의 부인 복식에 대한 이러한 관심은 그의 은둔 초기 저술인 『거가잡복고』에 대한 검토에서 밝혔듯이, 명이 망한 이후 위기에 처한 중화 문명을 지키기 위해 '소중화'인 조선의 衣冠文物을 더욱 철저히 중화의 제도로 개혁하고자 하는 의관제도 개혁론에 바탕을 둔 것이었다.

이와 아울러, 북경 체류 중 박규수가 탐방한 곳이 대개 명나라와 관련된 고적들이라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수사는 임진왜란 때 망할 뻔한 나라를 구해준 '再造之恩'으로 조선에서 길이 추모되어 온 명 신종의 모후 효정태후의 유상을, 장춘사는 명의 마지막 황제로서 社稷을 위해 자결한 의종의 모후 효순태후의 유상을 봉안하고 있었다. 또한 송균암은 명말 충신 양계성의 사당이고, 문승상사는 송나라 충신 문천상의 사당이었다. 법원사도 송말 충신 사방득이 순절한 곳이라는 점에서 유사한 성격의 고적이라 할 수 있다. 박규수가 자인사 내 고염무 사당을 참배한 것 역시 고염무의 학문 뿐 아니라 명에 대한 그의 節義를 존숭한 까닭이었다.

후일 재차 연행한 박규수는 북경 자수사를 다시 찾아 효정태후의 유상을 참배했거니와, 이를 두고 선배 尹定鉉은 "아아! 북경에 가는 인사 중 수준이 높은 사람은 중국인과 詩文을 주고 받고, 수준이 낮은 사람은 상점 따위를 유람할 뿐, 皇明 古蹟을 탐방하는 데 뜻을 둔 사람이 있다는 말은 들은 적이 없다"고 하면서, 그의 남다른 尊明意識을 칭송해 마지 않았다.(63) 1840년대 말에 쓴 글인 「高麗史洪武聖諭跋」에서 확인한 바 있는 존명 의식(64) 이

(63) 윤정현, 『梓溪遺稿』 권4, 「書朴獄卿二楊公遺墨跋後」.

이처럼 그의 연행 행적에서도 뚜렷이 드러남은, 그것이 박규수의 사상에서 변함없는 하나의 基底를 이루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라 하겠다.

연행 당시의 시문이나 행적에서 드러난 박규수의 뿌리깊은 소중화 의식과 존명 의식은 그의 대청 인식과 모순되는 듯이 보일지도 모른다. 박규수는 강렬한 존명 의식을 지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反淸的인 태도를 취하지는 않았다. 예컨대 그는 심병성 등과 교유하며 지은 시에서 청의 朝臣인 그들과 함께 서양의 침략에 맞서 싸울 결의를 표했으며, 비변사로 보낸 편지에서는 위문사 파견 조치로 인해 청으로부터 특별 우대를 받은 사실을 외교적 성과로 보고했다.

이러한 모순은 박규수가 연암의 손자로서 북학파의 사상적 세례를 받은 사실을 유념할 때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으리라 본다. 주지하다시피 병자호란과 명·청 교체 이후 대두한 尊明排淸主義는 청을 오랑캐라고 배척하고 '소중화'인 조선이 명을 대신하여 중화 문명을 수호해야한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이는 華와 夷의 辨別 기준으로 인종과 지역보다 중화 문명의 계승 여부를 중시하는 文化中心的 華夷觀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이러한 화이관에 의거할 때, 조선은 비록 '東夷'이지만 명이 망한 이후 천하에서 유일하게 중화 문명을 계승·보존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중화'라는 주장이 성립되는 것이다.

북학파는 존명 배청주의에 내포된 이같은 문화중심적 화이관을 顚倒시켜, 淸 文物 受容의 논리로 활용했다고 볼 수 있다. 연암은 청은 '夷'이지만 그 치하에서 발달한 문물은 어디까지나 '華'라고 보는 '청과 청 문물의 分離論'에 입각하여 북학을 제창했거니와, 이것은 조선은 '夷'이지만 그 문물은 '華'라는 종래의 주장을 뒤집어 놓은 것이었다.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면, 중화 문명을 계승한 점에서 청을 중국의 정통 왕조로 볼 수 있다는 현실적 對淸觀에 도달하게 된다.(65)

여기에 더하여, 西勢東漸과 아편전쟁의 발발은 서양 '오랑캐'의 군사적·

(64) 김명호, 1995 「환재 박규수 연구(3): 은둔기의 박규수 下」, 『민족문학사연구』8호, 163-5면 참조.

(65) 김명호, 1990 『열하일기 연구』, 창작과비평사, 121-5면 참조.

종교적 침략에 맞서 중화 문명을 수호해야 한다는 새로운 과제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이제 청은 더 이상 중화 문명을 유린한 오랑캐가 아니라, 조선과 함께 문명의 일대 위기에 대처해야 하는 공동 운명체로 인식되었다. 김윤식은 박규수에게 바친 증서에서, 비록 중국의 衣冠制度를 바꾸기는 했지만 역대의 어느 漢族 왕조보다도 유교를 숭상하고 있다는 점에서 청의 중국 지배를 긍정한 반면, 기독교의 중국 침투에 대해서는 인류 문명의 파괴로까지 규탄하면서 극력 배척했다. 이는 아편전쟁 이후 종래의 문화중심적 화이관이 청을 중화 문명의 계승자로 인정하고 청과의 連帶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轉化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덧붙여 말해둘 것은, 이러한 문화중심적 화이관을 확대 적용한다면 對西洋觀에 있어서도 일대 轉回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다. 청은 '夷'이지만 그 문물은 '華'라는 논리를 밀고 나가면, 서양은 '夷'이지만 그 문물은 '華'라는 논리도 성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벽위신편 평어」와 「지세의명」에 대한 검토에서 언급했듯이, 박규수에게 영향을 끼친 '西法中源說'은 이미 그와 같은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서양의 발달한 과학 기술이 실은 고대 중국에서 기원한 것, 즉 중화 문명의 소산이라는 주장은 북학파가 주장한 '청과 청 문물의 분리론'에 상응하는 것으로, 말하자면 '서양과 서양 문물의 분리론'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논리를 통해 북학파가 청으로부터 도입하고자 한 것은 양명학이나 고증학이 아니라, '벽돌'과 '수레'로 表象되는 '利用厚生'의 선진 기술이었다. 그와 마찬가지로 梅文鼎 등 西法中源說의 주창자들은 서양으로부터 천주교가 아니라, 曆法 등에 응용될 수 있는 天文 數學만을 수용하고자 했다. 이처럼 주자학 또는 유교의 우월성에 대한 확신과 자부심 위에서, 외래 문물을 주체적·선별적으로 수용하고자 한 점에서 양자는 상통한다. 이렇게 볼 때 북학파의 '청 문물 수용론'으로부터 '서법중원설'의 영향을 거쳐, 개화사상의 '東道西器論'에 이르는 사상적 발전 경로를 상정할 수 있으며, 따라서 「벽위신편 평어」와 「지세의명」에서 이미 '동도서기론의 萌芽'를 발견할 수 있다는 주장도 성립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1861년의 연행을 통해 박규수는 「벽위신편 평어」와 「지세의명」에

서 도달했던 사상적 수준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지는 못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출국 직전이나 북경 체류 중에 지은 시에서 박규수는 여전히 유교와 중화 문명의 우월성에 대한 확신을 견지하면서, 기독교의 침투로 빚어진 일시적 위기를 극복하고 장차 서양조차 중화 문명의 일원으로 포섭되는 낙관적인 미래상을 그려보이고 있을 뿐, 對西洋觀에 있어서 발상의 전환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한계는 그 무렵 南秉哲이 「書推步續解後」에서 서법중원설을 牽强附會라고 통렬히 비판하고, 서양 과학기술의 우수성을 솔직히 인정할 뿐 아니라 對西洋 외교에 있어서도 그와 같은 공정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과감한 주장을 편 사실[66] 과 비교해 볼 때 더욱 두드러진다.

김윤식은 贈序에서 문안사를 파견하는 의의의 하나로, 서양의 조선 침략에 대비하여 그들의 실정을 다방면으로 탐지할 필요성을 들었다. 박규수의 연행은 이 점에서도 일정한 한계를 보여준다. 아마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 때문이었겠지만, 북경에서 그는 서양인의 동태에 관한 피상적인 관찰이나 소문 수집에 그쳤을 뿐, 북경사변을 야기한 영국 등 서양 제국에 관한 정보에서 남다른 성과를 거두지는 못한 것이 사실이다. 오히려 그의 주된 관심사는 '皇明 古蹟'을 탐방하는 데 있었다.

5. 맺 음 말

북경사변으로 막을 내린 제2차 아편전쟁은 청으로 하여금 '海防時代'로부터 '洋務時代'로 전환하게 한 획기적 사건으로 평가된다. 제1차 아편전쟁 패배의 충격 속에서 『해국도지』와 『영환지략』 등이 출간되어 海防論을 불러일으켰지만, 구체적인 실천이 뒤따르지 못한 가운데 청은 다시금 패전을 당하고 굴욕적인 북경조약을 맺게 되었다. 이에 따라 청의 對西洋觀에도 일대 변화가 일어났다. 청 정부는 종래 '夷務'를 담당하던 理藩院과 禮部를 대신하여 總理各國事務衙門을 설치하고, 그 산하에 영어를 비롯한 서양어를 학습하는 同文館을 설립하는 등 '洋務'에 나서기 시작했다. 또한 개혁적 지식인들

(66) 김명호, 1996 「박규수의 '지세외명 병서'에 대하여」, 『진단학보』 82호, 259-61면 참조.

도 서양의 과학 기술에 대해 '夷技'로 貶下하던 태도를 버리고 '中學'과 마찬가지로 진지하게 학습해야 할 '西學'으로 간주하게 되었다.(67)

박규수가 귀국한 직후인 1861년 8월(양력) 열하에 몽진 중이던 함풍제가 병사했다. 북경조약 체결 이후 함풍제의 북경 귀환 문제를 에워싸고, 청 조정에서는 主戰論을 내세우며 귀환을 반대한 肅順 등 소위 熱河派와, 조속한 귀환과 和議를 주장한 공친왕 등 北京派 간에 정치적 알력이 빚어졌다. 함풍제가 죽자, 열하파가 기선을 제압하여 나이 어린 皇長子를 황제로 추대하고 실권을 잡았지만, 곧이어 10월 황제의 親母인 西太后가 공친왕 일파와 결탁하여 정변을 일으켜 열하파를 일소하고 垂簾聽政을 실시했다. 그리하여 실권을 장악한 공친왕 일파는 그 후 의욕적인 '洋務運動'을 통해 청조 지배체제의 재정비를 추진하게 되는데, 이는 同治帝의 在位期間(1862년~1874년)에 해당되므로 '同治中興'이라 일컬어지기도 한다.

물론 박규수가 열하 문안사로 북경에 갔을 당시는 아직 그와 같은 움직임이 태동하기 전이었다. 그러나 귀국 이후에도 그가 同治中興期 중국의 양무운동에 대해 관심을 기울인 흔적을 찾아 보기 어렵다. 제2차 아편전쟁 이후 중국에서 양무시대가 개막된 것과 달리, 같은 시기 조선에서는 그와 상응하는 변혁의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은 일견 불가사의하기까지 하다. 이는 아마 박규수 뿐 아니라 신석우·조휘림 등 북경사변 직후 현지를 답사한 사신들이 모두 중국 정세가 안정되어 있으며 서양의 침략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판단하는 등 낙관적인 보고를 한 사실과 관련이 깊을 것이다. 그 결과 姑息的인 內修外攘論으로 대처하던 중, 불과 수년 뒤 프랑스 함대가 강화도를 침공하는 丙寅洋擾를 겪게 된다.

(필자 : 성균관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67) 蕭一山, 앞의 책, 제3권, 832-3면 ; 小野澤精一 등 편, 1987 『氣의 思想』, 원광대 출판국, 588-9면 참조.